

vol.135

언론중재위원회 NEWS

인론 사람

Special News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Seminar

언론중재위원회
2011 정기세미나 개최

편집부 칼럼

위원회 30년을 되돌아보며



2011. **9** September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04  **세미나-2011 정기세미나 개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06 **편집부 칼럼**
위원회 30년을 되돌아보며

07  **위원단상**
음식을 통한 치유

08  **직원마당**
천년고도 경주의 향기를 느끼다

09  **실무연수기**
남미 대륙을 밟다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하찌와 애리 ‘꽃들이 피웠네’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강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착각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 현황**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오는 10월 26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기사심을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했다.

선심위는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원장에 양삼승 위원(64세, 변호사)을, 부위원장에 박기동 위원(55세, 변호사)을 선출했다. 양삼승 심의원장은 출범식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10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3곳 등 총 33개 선거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선심위는 8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 현 선거구는 9월 5일자 기준이며, 최종 선거구는 9월 30일 확정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1 정기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8월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규관대 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 김정탁 교수가 “현행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첫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에 대해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과 서울제2중재부 권일 위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손해배상소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제3중재부 박종순 위원(변호사)의 발제 이후, MBC 신경민 논설위원과 데일리안 편집국 이종근 국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직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해 현행 언론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4면에 계속)



“피해구제보도문 효과 높여야...조만간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손해배상액 실질화는 시대적 요청, 언론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



권성 위원장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의 형식과 내용이 원보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 역시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피해구제보도문의 효과와 손해배상지급액의 실질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서울제3중재부 강영수 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는 “현행 정정·반론보도문이 원 기사와 비교해 제목, 문안, 크기, 게재지면 등에 있어 언론보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목을 사용해 피해구제보도문의 전달력을 높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피해구제보도문임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

첫 번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은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통신문을 인용해 보도하는 ‘소극적 오보’와 독자적인 기획 취재나 언론의 주관에 개입되는 ‘적극적 오보’를 구분해 피해구제보도문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손 위원은 신문사가 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구제보도문을 2면에 주로 게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2면의 뉴스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보도문의 2면 게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제2중재부 권일 위원

서울제2중재부 및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 위원은 “일반 기사들이 핵심내용을 제목으로 하는 것과 달리 피해구제보도문은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등 정형화된 제목을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말해 이런 형태의 제목은 기사 제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조만간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1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서울제3중재부 강영수 부장



국민일보 손수호 논설위원

Seminar





서울제3중재부 박종순 위원

서울제3중재부 박종순 위원(변호사)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조정이 활성화되면 언론피해의 신속한 구제는 물론 법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액이 법원 판결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조정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언론사들도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MBC 신경민 논설위원은 “언론이 명백하게 잘못 보도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에도 응해야 하겠지만, 신청인 중에는 조정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신청인, 악한 언론사’라는 확실적인 구분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 결정을 통해 언론사가 수궁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BC 신경민 논설위원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 국차장은 “언론사가 보도 전에 기사를 더 엄격하게 스크린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해지는 매체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인터넷매체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손해배상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은 데스크조차 판단하기 힘든 일”이라고 전제한 후 중재위원회에 보다 전문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사건처리를 주문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 국차장

권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지는 의도이지, 손해배상액을 높여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본래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해서는 “중재위원워크숍 및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개선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각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 정리 · 사진 / 남승균(홍보팀)



위원회 30년을 되돌아보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정치적으로 엄혹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위원회는 반론권이란 개념이 생경하기만 했던 당시 언론계 등으로부터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경계와 오해를 받으면서도 언론피해구제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국민과 언론, 정치계,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두루두루 인정을 받아 현재 위원회는 창립 당시에는 없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중재, 인터넷신문 및 포털의 조정대상 포함, 선거기사심의 업무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사실상 위원회는 언론 소비자인 국민의 인격권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 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법률상 언론피해구제기구로는 세계에서 유사한 기관을 찾기 어려운 위원회에 대해 여러 선진국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위원회 주위를 맴도는 오해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시정권고 기능이 언론사의 자유를 위축하는 국가적 개입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32조가 규정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라는 의미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시정권고 제도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엄정하게 선정·공표된 시정권고심의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더군다나 심의기준은 결코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가 국가,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각종 법률(헌법, 형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언론사는 권고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데다가, 권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시정권고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기능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선거기사심의기능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기사심의는 "규제"가 아닌 "구제"를 위한

절차이며 이는 선거기사심의 내용이 신속한 반론권, 정정보도권, 대응권 등의 권리 구제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기사심의기능은 공정한 선거보도 유지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중재과정에서 권력위치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중재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인선과정의 특성상 국가기관에 보다 유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물론 분쟁조정 제도 및 기관에 대해 그 중립성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닌 명백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개인 신청 사건의 피해구제율을 앞서기도 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국가기관 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이 오히려 개인 신청사건의 그것을 밑돌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일생에 많아야 한두 번 보도의 피해자가 되는 개인에 비해, 여러 번 조정·중재절차를 경험해 본 국가기관이 제도와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법원에 제기된 언론소송의 결과를 살펴봐도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개인의 승소율을 크게 앞선다. 이는 문화관광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법부에서도 위원회의 피해구제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인데, 굳이 중재위원의 위촉과정을 문제삼아 심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편견은 아닐까?

물론 위와 같은 염려가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이해를 기초로 한 건전한 비판이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산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지난 30년 동안 언론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진해온 데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비판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 30년도 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원과 아픈 사랑의 매를 기대해 본다.

음식을 통한 치유



홍 숙 영 위원
경기중재부
한세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면 당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음식이 곧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뜻을 지닌 서양 속담이다. 과거에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구분되던 음식의 종류가 이제는 태국, 베트남, 인도, 이태리, 프랑스 음식, 퓨전음식 등으로 다양해진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식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음식을 통해 우리 문화와 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에 대한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음식문화가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지난해 지중해의 ‘일상적 식사’(diet·지중해), 프랑스의 ‘미식’(gastronomic meal), 멕시코의 ‘요리’(cuisine) 등 세 지역의 음식문화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법, 대를 이어 전승되는 요리법, 요리에 얽힌 이야기, 음식을 먹는 방법 등을 포함한 음식문화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올 여름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여행 지침서인 미쉐린 가이드에 ‘보통 가격에 맛있는 집’으로 추천받은 맛집에 간 적이 있다. 오픈한 지 2년,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장이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요리를 했는데,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는 깔끔했고 가격도 적당한 편이었다. 어느 프랑스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테이블은 여러 개의 유리잔과 냅킨, 테이블보, 꽃으로 장식되어 아름다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게다가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터의 태도에서 더욱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푸른 셔츠에 검정바지, 환한 미소로 일일이 음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문을 받는 이 훈남은 아페리티프, 애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요리,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접시를 바꿔주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 법이나 요리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었고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음식의 맛도 맛있지만, 재료의 색깔과 소스가 음식 위를 지나가며 만드는 흔적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이루고 있었다.

해외에서 한국의 아이돌이 인기몰이를 시작하고, 한국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한류의 새로운 물결을 이용해 한국음식을 전파하려는 전략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네스 펠트로가 비빔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거나 브룩 쉴즈가 슈퍼에서 고추장을 샀다거나 하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며 한식을 홍보하기에 앞서 “식사 하셨어요?”를 인사로 건네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음식 문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양의 음식쓰레기와 비위생적인 음식의 재사용, 분위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인테리어, 서비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친절하고 체계 없는 서빙, 급하게 먹고 일어서야 하는 시간적 촉박함…….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중해의 식사가 지혜를 나누기 위한 시간이고, 프랑스의 식사가 사교와 음식의 어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음식은 예로부터 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음식 문화를 형성해 왔다. 절기와 몸의 상태를 고려해 음식을 만들었으며, 식재료의 약리적 특성을 활용해 먹는 법을 고안해 왔다. 심지어 술도 ‘약주’라 부르며 몸에 좋은 과일이나 약초를 배합해 반주로 즐기기도 했다. 함께 먹으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조화시키고, 병을 다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식사 문화가 갖는 의미였던 것이다. 성급한 한식 마케팅에 앞서 음식을 통한 치유라는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음식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천년고도 경주의 향기를 느끼다



김 이 영
경남사무소 간사

이언적 선생 생가
서백당(書百堂) 앞에서

경남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 모임인 언우회(言友會)는 경주 문화해설 20년 경력의 전문가인 장성운 위원님의 안내로 경주 역사문화해설투어를 다녀왔다. 장 위원님은 양동마을, 황룡사지, 최부자집, 감은사지, 문무왕릉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한 해설을 해주셨다.

먼저 들른 곳은 경주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양동마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촌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단일 씨족이 아니라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양가문에 의해 형성된 특이한 마을이란다. 내가 아는 분은 회재 이언적 선생 정도, 여기서 장 위원님의 교훈이 넘치는 해설. “남자는 자고로 처가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언적 선생의 아버지가 부자에다가 똑똑한 손씨 집안으로 장가를 잘 와서 대유학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얼마나 손씨가 배가 아팠는지(아들 중심 사회다 보니) 여강 이씨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했다나. 처가에 의존했던 남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나보다.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관가정에서도 장 위원님의 입담. “여러분, 여기가 청백리로 칭송받던 이씨 집안이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청백리 집치고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들른 곳은 황룡사터. 절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복원된 우물의 직경이 3미터가 넘고, 5미터가 넘었다는 삼존불상의 발 받침대의 규모와 9층 목탑터의 돌로 된 추도 생각보다 훨씬 컸다. 목탑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인치미의 길이만도 2미터 가까이 된다고 하니, 9층 목탑은 얼마나 높고 웅장했을까. 금당에는 술거가 그린 소나무 벽화가 있었다는데 지나가던 새가 진짜인 줄 알고 날아오다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어떤 분은 황룡사에 벽화만큼 큰 거울이 있었을 거라면서 그 이름이 황용경(언우회 회장님)이었을 거라고 해 다들 웃기도 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경주 황룡사지 9층 목탑터

요석궁터는 조선 말엽 경주 최씨 일가가 자리 잡은 이후 지금은 한정식 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향한 곳은 감은사지와 문무왕릉.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도 쉽게 절에 오실 수 있도록 감은사 본당 아래 물을 통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런 효자를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끝으로 경주 시내의 왕릉들을 보면서 장 위원님께 물었다. “왕릉이 어느 왕의 무덤인지 다들 왜 표시를 안했을까요?” “왕이 죽고 무덤을 만들면 경주사람들이 당시에는 이 무덤은 누구 왕하고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들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구나. 끄덕.

장 위원님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 “흔히들 문화는 관심과 지혜가 있는 자만이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쏟을 때 진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경주 유적과 문화재, 우리 역사에 사랑과 애정을 듬뿍 쏟으신 장 위원님의 해설로 인해 경주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혜가 더 커진 하루였다.

남미 대륙을 밟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에서

이정희
기획팀

“뭐? 어디? 나암미이? 너희 둘이서?”

기사심의를팀 김정민 씨와 내가 남미 4개국의 여러 언론사와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피해구제제도를 알아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서를 제출하자 모든 이들의 반응은 이러하였다. 직항 비행기도 없어 가는 데 2박 3일, 오는 데 2박 3일 걸린다는 지구 건너편, 게다가 지진과 화산 폭발, 마약, 총기 관련 범죄 보도에 항상 언급되는 곳에 여직원들이 가겠다고 나서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일단 연수자로 선정되고 나니 할 일이 태산이었다. 우선 볼리비아 입국을 위해 황열병, 간염, 장티푸스,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했다. 남미에 인맥이 있을 턱이 없고 영어는 통하지 않는 곳이니 기관 선정을 위해 4개국의 한인회, 교민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쏟아 부었다. 직항기가 없는데다 워낙 표가 비싸 두 달간 애를 고통했다. 계절이 반대이니 겨울옷 등 방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며, 장거리 버스를 타야하니 침낭도 준비한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경유하여 30시간 걸려 도착한 페루 리마. 이틀간 쉬며 13시간의 시차에 적응한 후 페루 언론평의회를 방문하였다. 상위 직급자와의 간단한 면담을 예상했으나, 막상 도착한 평의회에서는 페루에서 가장 큰 신문사의 사주, 방송사 기사를 비롯, 평의회 의위원장, 사무총장, 중재위원을 맡고 계신 교수님, 사내 변호사까지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게다가 우리 위원회의 영문 홈페이지와 메일로 보내준 홍보 책자를 미리 출력하여 꼼꼼히 검토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보여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우리 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있다는 설명에 굉장히 놀라워하였고, 연간 처리 건수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페루의 경우에는 자율기구이기는 하나 중재부의 구성이나 법에 정한 정정보도의 절차와 형식 등이 우리나라와 사뭇 비슷한 점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피해구제제도는 페루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었고, 칠레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는 국민의 권리 의식도 비교적 낮을뿐더러 각 언론사가 독자의 항의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자 그야말로 대단하다는 반응이었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4개국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둘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은 남미에서는 못산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사람들의 성향이나 태도가 어찌나 느긋한지 속이 터지다 못해 천불이 나는 것이다. 비행기가 7시 출발 예정이면 우리는 세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다. 체크인에만 한 시간이 걸린다. 출국 지점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 시간을 서서 출국 도장을 찍는다. 출국장을 나선 후 다시 줄을 서 짐을 검사한다. 공항에는 세 시간 전에 왔는데 보딩 게이트에는 정시에 도착한다. 물론 비행기는 뜨지 않으며,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고 느긋이 앉아있다. 여기가 서울이었으면 지금쯤 공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저 직원은 목숨이 위험했을 거야, 그러나 여긴 남미지, 하며 화를 누르고 우리도 기다린다. 9시가 된다. 두 시간은 좀 심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직원에게 묻는다. “15 minutes!” 하염없이 기다린다. 10시가 되자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데스크에 줄을 선다. 이건 도대체 뭐가 싶어 뒤에 선다. 한 시간을 기다려 우리 차례가 된다. 직원은 우리가 스페인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개의치 않고 설명한다. “In English, please!!!” “flight, (손으로 엑스표를 만들며 얼굴을 찌푸린다. ‘비행기가 결항되었어요’로 해석한다) we, call you.(이번엔 ‘변동상황 있으면 알려줄 테니 잠자코 계소’로 해석한다)” 이런,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다들 줄을 섰던 것이다. 결항이면 즉시 그렇다고 안내방송하지 않고 이 많은 인원을 두고 한 사람씩 이야기해주고 있던 말인가! 내일은 언론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오늘 비행기를 못타면 국제적 망신이다. 직원 뒤를 졸졸졸 쫓아 다닌 끝에 2시경, 탑승에 성공한다. 안전벨트를 매자 이미 손가락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

왜 이곳의 웨이터들은 계산서 갖다 주는 데 30분, 거스름돈을 갖다 주는 데 다시 30분이 걸리는 걸까,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줄이 10미터인 상황에서 저 계산원은 처음 보는 고객과 도대체 무슨 인생 상담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한다. 한 달 후, 모든 일이 원활하고 신속하며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에서 우리는 출근 하루 만에 주문한 음식이 10분 안에 안 나오면 짜증을 내는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다. 여기서의 맛볼 수 없는 배짱이랄까 또는 무심함이랄까, 그런 삶의 여유가 가끔은 그립다.

하찌와 애리

꽃들이 피웠네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올해 58세의 하찌는 가스카 히로부미(春日博文)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이다. 일본인인데 한국의 사물놀이와 국악에 매료되어 벌써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 사실 그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뮤지션이자 프로듀서다. '카르멘 마키 앤 오즈'라는 1970년대 전설적인 사이키델릭 그룹의 기타리스트였고, 'RC 석션션'이라는 유명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다. '소울 플라워 유니언'과 같은 밴드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했으니 그는 연주자로서나 프로듀서로서나 일본 록음악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살면서 음악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뿌리'처럼 느껴졌다는 사물놀이의 비트에 매료된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을 오가면서 팽과리와 장구를 배웠다. 한참을 집중해서 사물놀이를 배운 그는 일본 록밴드의 음악에 장구와 팽과리를 편성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의 뮤지션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는데 강산에 3집의 프로듀서를 시작으로 한대수를 비롯한 여러 한국 뮤지션과 공연을 하게 되었고, 흥대의 젊은 뮤지션과 '하찌와 TJ'라는 듀오를 만들어 음반도 발표했다. 지금은 아침 TV 프로그램에 재래시장을 배경으로 리포터로 등장하는가 하면,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할 정도로 꽤 얼굴이 알려져 있다. 내가 보기엔 그는 절반 이상은 한국인이다.

하찌의 새로운 밴드, '하찌와 애리'는 황애리라는 국악을 전공한 남원 출신의 20대의 여성 판소리꾼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다. 둘 모두 국악에 조예를 가지고 있지만 어설픈 퓨전 음악은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기타를 1/4 사이즈 정도로 줄인 4현악기 우쿨렐레로 반주되는 소박한 음악들로 채워져 있다. 작곡은 모두 하찌가 했고, 노랫말과 노래도 하찌의 몫이 적지 않다. 타이틀이 '꽃들이 피웠네'가 아니라 '꽃들이 피웠네'가 된 것은 하찌가 고치지 못하는 독특한 역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고백하자면 나는 이 음반을 들으면서 울어버렸다. 이 음반에 수록된 '하찌와 애리'의 노래들이 부모님의 위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노래들은 어깨에 지고 있는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기를 재촉한다. 짐을 벗어놓고 앉으며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요?"라고 물으면 하찌 아저씨가 처진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괜찮아, 아주 잘 살고 있어."라고 대답해주는 것 같다. 물론 말처럼 진짜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찌 아저씨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이렇고 저건 그렇고... 하는 식으로 프로페셔널한 분석으로 가득한 조언에 지쳐 있지 않나? 질릴 만큼 들은 그런 조언 대신에 하찌 아저씨는 "긴 겨울 맨 끝에 얼음들도 녹았어. 오래 기다렸었던 사랑 꽃들이 피웠네."라고 노래를 건넨다. 이건 어른, 아니 부모의 노래다. 나를 믿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부모 같은 사람이 들려주는 노래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과 사랑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지혜의 노래다. 그러니 꽃들이 피자 나는 그만 울어버린 것이다.

소박한 우쿨렐레 반주로 이루어진 음악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하와이언, 보사노바에서부터 70년대의 한국 포크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자양분 삼아서 만들어졌고, 하찌의 오랜 프로듀서 경력으로 숨씨 좋게 마무리되었다. 마음먹고 화려하게 편곡했다더라면 훨씬 주목 받을만한 음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 음반은 저 멀리 '명반의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신 가벼운 마음으로 코드를 익혀 따라 불러보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다. 박은옥, 은희부터 신형원 같은 여성 포크 싱어를 떠올리게 하는 애리의 보컬은 젊고 신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애리와 하찌와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한켠에서 라나에로스포 같은 오래된 그룹도 떠올리게 한다.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 벌써부터 2집이 기다릴 정도다.





강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착각

정해승
나주 가정견훈련소 소장

아름답고도 애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마음이'를 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는 어린 두 남매와 함께 자라며 가족을 넘어 그 이상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주인공 강아지의 이름이다. 그런데 정작 '마음이'는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까? 사실을 말하자면 그런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이의 연기에는 '훈련'이라는 트릭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짚어보자면, 마음이가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주인을 따라 달려가는 장면은 사실 촬영하기가 쉽지 않다. 위압적인 촬영장비 속에 낮은 스태프들이 자신만을 지켜보는 상황은 훈련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자신의 주인을 훈련사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연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훈련사는 화면 밖에서 공이나 먹이로 마음을 달래며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악당을 공격하는 장면도 훈련의 결과이다. 훈련과정에서 훈련사가 범외자처럼 분장한 채 막대기를 들고 자극함으로써 훈련견은 점차 '나쁜 사람'의 전형을 인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악당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흥기를 빼어든 순간 그것은 공격명령이 되는 셈이다. 그밖에도 애교 부리기, 살금살금 걸기 등 기존의 훈련행목을 영화의 스토리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면 마음이가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듯이 절묘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개는 영특한 만큼 감성도 풍부한 동물이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이유로 견공들에게 훈련 아닌 훈련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나는 한 평생 애견훈련사로 살아오며 자칭 애견인(愛犬人)들을 수없이

이 만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를 좋아할 줄만 알지 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주인들이 선물하는 애견용 신발이나 옷은 개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방해한다. 특히 신발은 발바닥에 있는 땀샘을 막아 땀의 배출이 안 돼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그 외에도 지나친 애견미용이나 간식 등도 피로, 피부질환, 비만 등을 유발한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애정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개가 항상 고마움에 가득 차 있을 거라며 뿌듯해하는 인간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견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둘씩 실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산책을 꼭 나가도록 하자. 이 시간은 흠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이다. 무엇보다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강아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자. 경험으로 터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애견과 관련한 도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좀 더 깊은 정보를 파악해서 주인이 몰라주는 섭섭함을 달래주자. 또한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이 현실로 느껴질 만큼 과잉보호된 애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길러진 강아지는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한 버릇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되 엄하게 할 때는 확실히 하자.

개는 오랜 세월동안 인간과 함께한 가장 친근한 동물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알기 힘든데 동물인 견공들의 마음을 어찌 쉽게 알 수 있으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동행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 조금만 시각을 바꿔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배려가 담긴 선물을 해보자.

활력충전 박대리
〈남량특집〉
주대석

나는 네가 근무 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왜 전부 금요일! 게다가 야유회는 1박 2일? 정부의 압력? 역시 동양의 신비?

활력전자 9월 일정표

목	금	토	일
부서 회식	신입사원 환영회	나선출발	공휴일
연세쉬라고?	가을맞이 야유회	가을맞이 해변대리프	가을맞이

13일의 금요일 (피의 야유회)

으악! 저주의 멜로디! 월요일이 다가온다!

스크림

분명히 월급날인데 월급이 없어? 그것도 일년내내...

유주알 서스펙트 (엄마 심판원만 빌려줘)

CARTOON

COMMISSIONERS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중국지부 방문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8월 8일부터 3박 4일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중국지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권 위원장은 방문기간 동안 '사랑의 일기 운동'과 관련해 중국조선족소년보사와 북한 소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일기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랑의 일기 운동이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활발한 교류를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8월 2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11 사랑의 일기 큰잔치'를 개최해 성실함과 봉사정신으로 일기를 쓴 부산시 초·중고 49명에게 시상했다.



▶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 고문 활동

권성 위원장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대회의 고문을 맡아 활동했다. 에이즈관련 국제회의로는 국내 최초인 이번 대회는 '다양한 목소리, 하나 된 행동'을 주제로 에이즈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대회기간 동안 70여 개국 4,000여명의 관계자들이 방문해 심포지엄, 위성회의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칼럼 게재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은 한겨레신문 '낮은 목소리'에 '인권보호 없는 공익은 사상누각'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장 위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언론보도가 신속하고 광범위해진 만큼, 개인의 인권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익과 개인의 인권을 함께 보호해야 함을 역설했다.



▶ 법률신문 기고

박종순 위원(변호사, 서울제3중재부)은 8월 18일 법률신문에 '미국의 변호사'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위원은 최근 미국 법률시장의 동향을 제시하며 우리 변호사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기자회견 개최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8월 9일 경기도의회청사 브리핑룸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헌법소원청구를 위한 사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 위원은 경기중앙지방법원변호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 2011 통일안보 학술세미나 발제



김창희 위원(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8월 26일 충남대학교 인문대에서 개최된 '2011 통일안보 학술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김 위원은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의 발제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국민적인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NEWS



증거조사 교육 실시



위원회는 8월 8일 6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제4중재부 임병렬 중재부장(서울지법 부장판사)을 강사로 초빙해 조사관 및 지역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액과 피해구제보도문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원의 증거조사 방법을 토대로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임 중재부장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증거 자료선정까지 중재부장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거조사의 기능강화를 강조했다.

상담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 완료



위원회는 8월 26일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를 마쳤다. 이번 상담실 환경 개선을 통해 열린 공간으로서 상담창구와 신청서 접수를 위한 접수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와 민원인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어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친밀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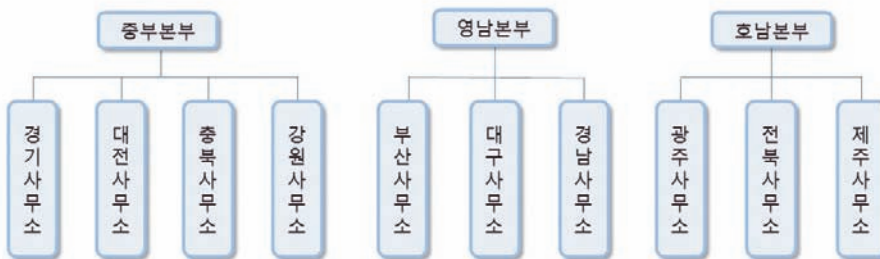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교육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위원회 실무수습교육이 8월 29일 종료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교육에 참가한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등 법학전문대학원생 5명은 피해자 상담과 조정·중재 및 기사심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역할과 언론보장처리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위원회 직제 개편 실시

위원회는 8월 1일부로 지역사무소의 업무 활성화와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무소를 광역단위로 묶는 사무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위원회는 전국 10개의 지역사무소를 3개 지역본부(중부,영남,호남본부)로 재편성해 지역본부제로 운영하게 된다.



2011 상반기 중고생 인턴십 성황리 마무리



중고생을 대상을 실시된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7월 15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인턴십에는 총 81개교에서 2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언론의 역할과 기능,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유형,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인턴십은 매 방학기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방학 인턴십은 12월 하순경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011년 8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위원회는 8월까지 모두 1,558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99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74건(동의 41건, 이의 23건, 계속 10건), 조정불성립결정 174건, 기각 25건, 각하 8건, 취하 697건(491건), 계류 81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1.9%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435건, 인터넷뉴스서비스 396건, 방송 157건, 뉴스통신 51건, 잡지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8월까지 89건의 중재결정을 내렸으며, 6건이 취하되었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48건, 반론청구 24건, 추후청구 12건, 손해배상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1~8월	정 정	679	258	24	12	7	87	10	1	243(144)	37
	반 론	113	45	3	0	0	18	5	0	31(18)	11
	추 후	144	20	1	1	0	6	0	2	114(108)	0
	손 배	622	176	13	10	3	63	10	5	309(221)	33
합 계		1,558	499	41	23	10	174	25	8	697(491)	81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 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 각	계 류
1~8월	정 정	48	45	0	3	0
	반 론	24	21	0	3	0
	추 후	12	12	0	0	0
	손 배	11	11	0	0	0
합 계		95	89	0	6	0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8월 22일 7차 회의를 열어 총 27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14건, 자살자 신원공개 10건, 피의자 신원공개 3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건, 일간지 5건, 주간지 3건, 뉴스통신 3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8월 한 달 동안 189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13건, 타기관 안내 11건, 법적절차 안내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신문 59건, 방송 39건, 주간신문 31건, 인터넷뉴스서비스 11건, 뉴스통신 6건, 잡지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8월말 현재 112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37회, 언론사 28회, 인턴십 프로그램 19회, 지자체 8회, 대학 6회, 공·사기업 6회, 법무 수습교육 3회, 기타 5회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4 FAX 02-397-3089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